



우리는 멈출 수 없다!

2012 시즌 / 건의사항

2011년 11월 12일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지자연대

www.daegufc.or.kr

일당백 대구의 합성! 대구FC 지지자 연대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11년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K리그 역시 모든 리그 경기가 종료되고 플레이오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FC는 작년보다 상승한 12위를 기록하며 2011년 K리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구에게 올 시즌은 아쉬움과 희망을 함께 보여주는 해였습니다.

리그 초반 경쟁력 있는 경기를 보여주며 전반기 시즌 준수한 성적을 보이면서 리그 중위권에 합류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불거진 승부조작 사건으로 주전 선수들이 대거 퇴출되면서 아쉽게도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하위권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대구의 매 시즌은 초반의 반짝 상승세에 기대를 품다가도 시즌 말이 되면 환호보단 한숨 소리가 더 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단 성적뿐만 아니라 관중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대구의 시즌은 뒷심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지지자 연대에서는 구단을 지지하는 공식적인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새롭게 맞이하는 2012년에는 구단이 보다 성공적이고 희망적인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계획을 구성해 이와 같은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건의사항 내용은

1. 서포터즈 인원 및 관중 확보를 위한 노력
2. 선수단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관련
3. 구단 건의사항 관련
4. 10주년 관련
5. 지지자들에게 받은 기타 건의사항

특히 2번째 내용은 선수단의 프라이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대구는 창단 이후부터 항상 재정적 빈곤에 시달리며 선수단에 대한 지원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는 선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자랑거리라기 보단 전면에 자랑스럽게 내세우기 힘든 프로스포츠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선수단에 대한 지원 부족은 선수들의 자신감이나 자부심 하락으로 이어져 경기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가난한 이미지를 가진 구단일지라도 선수단이 대외적으로 비취지는 모습이나 내부적으로 받는 지원은 어느 구단 못지 않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대구에게 뜻 깊은 해입니다.

구단이 창단한지 10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이자 동시에 2013년 승강제에서 살아남을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해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구단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지, 생각하기 힘든 결과를 맞이할 지는 스태프, 선수, 지지자 각자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위기이자 동시에 희망이 될 수 있는 해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서포터즈 인원 및 관중 확보를 위한 노력

- 대구FC 지지자연대 회원으로 통합적 회원 관리
- 입장시 응원 깃발 지급 후 시합 후 수거
- N석 3층에서 2층으로 통천을 설치하여 2층 안쪽에 있는 관중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
- 홈 경기시 출석 뱃지 증정
- 응원 문구를 직접 작성 할 수 있는 프린트 용지 배포
- 간단한 기념품 지급 (볼펜-메모지-자-지우개 순으로 시즌이 끝나면 학용품 세트 완성)
- 2011 시즌 팬들이 찍은 사진으로 2012 시즌 달력 제작
- 한마음 체육대회 봄 개최 (선수, 지지자, 프런트가 함께 하는 행사)
- 홈 경기시 N석 응원단에게 생수 지급
- 지지자연대와 프런트 대화 창구 단일화

2. 선수단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관련

- 열악한 선수단 환경
- 연습 구장
- 장비담당
- 유니폼 지급 관련
ex) 홈 경기시 라커에 선수 유니폼이 2벌씩 걸린 모습을 상상해 본다.
- 단복 공식행사 (출정식, 사인회) 이미지 상승과 협찬 활용으로
- 사인회 수시 개최
- 선수단 상품화 ex)어린이축구캠프 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팬 확보

3. 구단 건의사항 관련

- 구단 인식 전환
- 섹터 가격 차별화 (특히 원정석 가격 인상, 청소년 할인 없음 ex.북패)
ex) 연간회원권 + 물품, 어린이 회원 섹터(E,W,N석)와 관계없이 저렴하게
- 상시 물품 판매소 설치
- 구단 상품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통한 구매욕 자극
가격이 비싸도 사고 싶은 물품, 소장가치가 있는 물품
- 성의없는 물품 판매
ex)레인자켓 (실물사진은 없고 사이즈만?)
- 디자인팀의 필요성(구단직원들의 자기들의 확실한 역할이 없으며 인력 또한 부족)
- 홈구장 분위기 조성
ex) 구단 엠블렘 설치(강원)
경기장 내 외 선수 사진 및 깃발 장식
원정석에서는 지금처럼 선수 이름만 보이게끔
세계육상대회때 살비가 나와서 조용히 시키는 동영상을 이용해 우리 코너킥, 프리킥 상황에 이용
독일 브레멘의 경우 경기장에 용병선수 출신 대형국기를 게양하는데 브라질 감독을 맞이했으니
대형 브라질 국기게양
- 응원가 음원 제작
ex) 출정가 부를때 전체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음이 나온다거나 전광판에 가사가 나오게끔
- 믹스드존 설치 (경기 후 팬들이 선수를 볼 수 있게끔 동선 확보)
- 대구 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하여 경기장 투어프로그램 편성
- 아르바이트생, 경호원 교육 철저
- 스마트폰용 구단 모바일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 자동차경품
ex) 경품 차량색을 우리 팀 색깔로 하거나 스티커 부착으로 추후 경품당첨자가 타고 다니면서 대구FC 경품 차량임을 홍보

4. 10주년 관련

- 유니폼 확립 (10주년에 포인트)
- 10주년 기념 상품 제작
- 엠블렘(단복), 패치(판매), 머그컵, 패넌트, 모자, 머플러, 등등
- 10주년 역사책

5. 기타 건의사항

1. 단장님 취임 초반 내세웠던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를 테면 두류공원 부지에 전용구장을 설립한다는 내용,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지원금액 중 일부를 시에서 지원받아 재정을 확충시키겠다는 내용 등.
2. 겨울 이적 시장에서 김현성, 송제헌, 황일수 등 유능한 주전 선수들의 타 팀으로의 이적에 잘 대처할 수 있는가? 더불어 이적 시장에서 재계약을 무난히 성사시키고 즉시주전급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확충되어 있는가?
3. 대구의 현임 브라질 코치 선임은 국내 축구계에 큰 이슈가 되었는데, 감독 역시 중요한 홍보 자원 및 대외적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브라질 수석코치로서 감독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실시하는 것은 어떠한지?
4. 언론매체(지상파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외적인 홍보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5. 셔틀버스 운행, 지역문화단체 활동 같은 경우는 대구FC 경기가 있는 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적어도 주말 경기마다 계속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특히 리그 인기팀(수원 등)과의 경기에는 더 큰 이벤트를 마련해 인기팀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도를 높인 다음 대구에게 그 관심도를 옮길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6. 계명대학교에는 CEO포럼이라는 경영학과 특강이 있는데 이런 특강에 단장님 등 고위 구단 간부들이 직접 대학교를 방문에 강연을 하고 대구에 대한 홍보도 간접적으로 실시하면서 대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흥미 유도를 했으면 한다. 대학생은 축구와 같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동시에 젊은 나이로 장기적인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나이이므로 특히 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략했으면 좋겠다.